

보도설명자료 (19. 10. 23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한전 적자는 “탈원전”과 전혀 무관하며, 전기차 충전요금
특례할인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음
(조선일보 10.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최근 한전의 실적이 하락한 이유는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
때문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 전혀 무관함
- ◇ 아울러,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음
- ◇ 10.23일 조선일보 <한전의 탈원전 적자에...전기차 충전료 2배
떨수도>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탈원전으로 적자 늪에 빠진 한전이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혜택을
연장하기 어려운 형편에 빠졌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최근 한전 영업실적이 하락한 이유는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에
주로 기인하며,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전혀 무관함
 - * LNG가격(만원/t): ('16) 59.2 → ('17) 66.1 → ('18) 76.8 → ('19.上) 77.9
 - 원전의 예방정비 및 가동은 원전안전법령상의 기술기준 준수와
안전성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
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
- 아울러,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음

※ 문의: 산업부 전력시장과 박찬기 과장, 김은성 사무관(044-203-5172)